로컬리티와 1954년, 대구*

- 『마당 깊은 집』을 중심으로 -

박승희*

〈차 례〉

1. 글로컬리즘의 재사유
2. 1954년, 미국/서울/대구
3. 내부 디아스포라와 세계/국가/로컬
4. 가부장제와 로컬/국가/세계
5. 1954년과 2011년

【국문초록】

글로컬리즘에 대한 재사유와 로컬리즘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극복하는 운동으로서 로컬리티가 글로컬리즘의 새로운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와 자본의 이윤동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매개고리로서의 국가, 그리고 세계/국가/중앙의 가부장 체제 등에 대응하는 로컬의 삶 자체에 대한 질문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글은 소설 『마당 깊은 집』을 통해 대구라는 특정 지역에서

* 이 연구는 2010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타난 전후의 내재화된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살펴, 한국전쟁 이후 자유주의적 성장 논리가 로컬의 위치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고구하였다. 전후 미국 문화를 통한 세계 인식, 가난과 반공으로 재구성되는 로컬의 삶, 그 과정에 드러나는 로컬에 대한 국가의 억압 기제는 소설이 재현하는 로컬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 인식이 본격화 되는 전후의 로컬 내부에서 세계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로컬의 삶이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우리는 소설『마당 깊은 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설이 창작된 198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전쟁 이후 경제 발전과 성장을 긍정하는 기성세대들의 세계화 의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는 1954년, 대구가 보여준 전후 삶의 재현 과정은 세계화 내지 글로컬리즘에 포섭된 지금의 대구 혹은 한국의 내부에서 로컬적 삶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글로컬리즘,『마당 깊은 집』, 로컬리티, 한국전쟁, 1954, 미군문화, 자유주의

1. 글로컬리즘의 재사유

글로컬리즘(Glocalism) 혹은 글로컬리티(Glocality) 인문학 연구의 시작점에서 우리는 먼저 그 문제 의식과 연구 방향을 스스로 제한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글로컬리즘이 지나치게 광의(廣義)로 읽혀지면서 지역의 일상에 세계적 수준을 요구하는 압도적인 심리 기제로 작용하거나 초국적 기업의 자본 증식을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굴절시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극복이라는 특정 의식을 설명하는 글로컬리즘이 실제로는 로컬에 대한 국민국가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현실 때

문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컬리즘과 이와 관련된 운동들이 세계화의 맥락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계화는 지구적 차원의 지역불균등발전을 배경으로 세계 경제를 재구조화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본의 증식 과정을 표현한다.[1] 특히,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과 이윤 추구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략의 하나로 글로컬리즘이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글로컬리즘은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문화적 요소나 환경, 역사, 인간, 심상 등을 자본 증식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나가는 세계화 과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로컬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컬리즘은 결국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을 식민화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대 자본주의 이후 지역 공동체는 일국 차원의 시장 속으로 편입되면서 세계화의 가속으로 초국적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구 차원의 단일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한다. 이는 결국 인간적 삶의 중요한 터전인 로컬 커뮤니티의 붕괴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컬리즘에 대한 재사유'[2]는 이러한 로컬의 위기와 붕괴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전략 속에서 세계와 로컬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재구축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로컬리티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로컬리티의 프리즘으로

---

1)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 2001, 참조. 하비는 지리적 불균등발전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맞설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제시하고 있다.

2) 『로컬리티, 글로컬리즘을 재사유하다』,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좌담회, 2010.2.25. 이 좌담회에서 글로컬리즘은 지구적 자본주의체제(가부장체제)를 의미하는 한편, 국가 경계를 넘어 지역 간 연대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글로컬리즘을 풀뿌리 입장에서 재사유하는 운동적 의미에서 로컬리티를 제안하고 있다.

글로컬리즘을 빗금치고 해체하는 '로컬의 세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지정학적 공간으로서의 로컬이 세계 속에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화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극복하는 운동으로서의 로컬리티를 요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와 자본의 이윤동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매개고리로서의 국가, 그리고 세계/국가/중앙의 가부장 체제 등에 대응하는 로컬의 삶 자체에 대한 질문과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로컬리티는 대개 중심/주변의 구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심/주변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질서의 구도 내에서 상대적인 비주류 집단을 대표한다. 탈근대, 탈중심, 탈식민의 개념과 함께 중심 권력에 대한 지배와 종속의 구도를 전복시키는 운동으로 로컬이 수용되는 과정은 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로컬을 곧 소수자로, 로컬리티를 주변부의 특징적 성향 정도로 규정하는 것은 로컬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아니다. 주변화를 비판하고 중심/주변의 공간적 성격을 구분해도 결국 이 공고한 배치구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부에 대한 반복적 환기는 중앙에서 파생되는 위계의 구도를 전제한 비판일 뿐이다. 중심/주변에 대한 폭력적인 위계구도를 폭로하는 현상적 재확인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로컬의 현실을 논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로컬리티와 주변성 그 자체를 곧바로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3]을 경계하는 한편 로컬이 '결여'를 자각하는 지점에서 탄생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로컬을 세계-국가-로컬의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살필 때, 로컬리티는 공간과 계층, 권력 관계에서 작은 공간, 낮은 위계, 종속적 위치라는 상대적

3)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혜안, 2009, 93쪽 참조.

‘결여’의 자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4)]

이는 로컬이 언제나 ‘탈-로컬’을 향한 욕망의 담지체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이 욕망은 어떤 의미에서 로컬의 세계적 구상이라 말할 수 있다. ‘탈-로컬’이 기존의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적이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로컬’은 세계에 대한 획일적 모방으로 전락한다. ‘탈-로컬’을 곧 세계적 수준의 경제와 문화, 삶의 질로 받아들이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적 서사를 통해 로컬의 주민을 세계화의 틀로 재구성할 때, ‘탈-로컬’의 욕망은 세계와 동일시하거나 획일화 하는 방식으로 로컬의 삶을 포섭한다. 이 때 국가는 로컬 공간을 정치화 하거나 세계로의 강제적인 편입을 유도하게 된다. 곧 국가는 세계적 구상 속에서 로컬의 억압적 기제로 다시 귀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국가/로컬의 중층구조 안에서 국가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일련의 이해들은 제고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본의 이윤 동기를 지역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세계화의 매개 고리를 형성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로컬의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중앙·수도권과 주변지역이 지나치게 차별적이고 기형적인 이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로컬의 세계화를 강조한다. 발전과 개발, 경쟁을 통해 세계적 국가 경쟁력을 강조함으로써 로컬과 중앙의 분리와 불평등, 비민주적인 질서를 추상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컬의 주민들은 국가의 기득권 논리를 자신의 논리인 것처럼 내면화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일종의 강자 중심의 세계화 논리에 중독된다. 이것은 세계화의 중요한 결과이며 글로컬리즘의 현실이다.[5)]

---

4)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 『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 3~4쪽 참조.

5) 최근의 금융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국가의 행태는 이를 반증한다. 금융 부

1954년, 대구는 전후의 도시 풍경과 냉전 이데올로기, 미군문화와 피난의 흔적이 집중된 지역이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상황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전후의 빈곤한 삶과 함께 공존하는 곳이 대구였다. 소설『마당 깊은 집』[6]은 이러한 전후 대구를 배경으로 소년 서술자가 당시 대구의 일상과 빈곤한 가족사를 들려준다. 일종의 성장소설로 분류되는 이 소설은, 대구라는 특정 지역의 빈곤한 일상을 통해 전후에 내재화된 성장과 개발의 논리를 재현하고 있다. 소설은 한국전쟁 이후 자유주의적 성장 논리가 로컬의 위치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소년의 시선을 통해 보여준다. 전후 미국 문화를 통한 세계 인식, 가난과 반공으로 재구성되는 로컬의 삶, 그 과정에 드러나는 로컬에 대한 국가의 억압 기제는 소설이 재현하는 로컬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경제 인식이 본격화 되는 전후의 로컬 내부에서 세계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국가에 의해 로컬의 삶이 어떻게 재구성 되는지를 우리는 소설『마당 깊은 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탈-로컬'의 욕망과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폭력과 로컬의 일상적 삶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마당 깊은 집』의 내용은 전후 로컬을 연구하는 주요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소설이 창작된 시기가 1980년대 중반이란 점에서, 소설은 전쟁 이후 경제 발전과 성장을 긍정하는 기성세대들의 세계화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1954년, 대구가 보여준 전후 삶의 재현 과정을 보여준 소설『마당 깊은 집』은 세계화 내지 글로컬리즘에 포섭된 지금의 대구 혹은 한국의

문에 대한 처방과 치유는 국가의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가는 금융집단과의 농밀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 통제 수단을 상실하거나 금융 자본이 마련한 배당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호기,「신자유주의의 황혼」,『경향신문』, 2011.10.16. 참조.

6) 김원일,『마당 깊은 집』, 1988, 문학과지성사.

내부에서 로컬적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1954년, 미국/서울/대구

1954년은 소설 『자유부인』(정비석)이 논란 속에서 14만이라는 경의적인 판매부수를 올린 해였다. 이를 영화화한 『자유부인』(한형모, 1956) 또한 1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자유'가 시대의 유행어로 등장했다. 아프레 게르après guerre 혹은 아프레 걸après girl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전후 여성의 자유가 화제로 등장하거나 '럭키 서울'이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등 이국풍의 노래가 거리의 전파사에서 흘러나오는 등 이미 자유는 일상의 문화적 표현이 되고 있었다. 백화점 옥상에 카바레가 생기고 '미 8군쇼'가 미국 문화의 전진기지로 기능하는가 하면 양복과 퍼머머리가 '자유의 주장하는' 것이요 '민주적 변화'로 읽혀지는 시대였다.[7]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상상력에 중요한 원천을 제공했던 미국은 물질문명의 고장, 무제한의 풍요와 자유의 땅으로 표상되는 세계적 위치를 확보했다. 전후의 '자유'라는 명명 속에는 이렇듯 미국에 대한 심상과 문화 지형을 내재하고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은 '우유가루같은 구제품'과 마를린 먼로가 나오는 영화 『나이아가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8] 미국물자를 나누어주는 교회와 풍요로운 미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화관은 미국을 향한 출구로 기능하였으며 그것은 곧 세계를 만나는 공간이기도 했다. 전후의 궁핍한 일상과 대비되는 물질적 풍요와 세련된 생활

---

7) 이만갑, 「윤리의 세대적 차질」, 『사상계』 1959.4, 35쪽 참조.
8) 권정생, 「영원히 부끄러울 전쟁」, 『역사비평』, 1995 여름, 18~20쪽 참조.

상을 보여주는 교회와 영화는 그 영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실물을 만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미국 영화는 한국사회에서 미국 이미지를 일상화·대중화하는 대표적인 장르였다. 미국을 소비하는 대중적인 문화형식으로서 미국 영화는 미국을 가장 구체적으로 만나는 기회였다. 영화에 등장하는 여배우가 대중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였으며, '먼로 워크'란 유행어가 등장하거나 1955년 상영된『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햅번은 '햅번 스타일'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당대의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 또한 미국영화를 자신을 구별 짓는 문화코드로 소비하고 있었다.

전후의 폐허 위에서 미국영화가 만든 이러한 풍속은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체제 속에 당시 한국인들의 내밀한 욕망을 구조화 하거나 재편하는 증거였다. 결국 1950년대 미국영화는 미국이 세계국가로 인식되는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1950년대 세계국가 미국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나라, 제도와 교육 등에서 문명화된 나라로 인식되었다.

'미제' 물건으로 통칭되는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욕망은 한국의 일상생활을 다양한 지점에서 재편하고 있었다.[9] 특히 서울은 미국이 전시되고 소비되는 공간으로 재구성된다. 미국에 대한 욕망과 소비는 서울을 그 중심으로 일상화 되고 있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거리가 등장하고 연애 방식까지도 모방하는 세태가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 영화를 통해 제공된 실물은 구체적으로 서울을 세계 속에 편입시키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

9) 작가 박완서의 말을 빌면, 나일론은 떨어진 면양말을 밤늦게 까지 깁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조차 바꾸는 일상의 혁명이었다고 한다. 박완서,「1950년대 - '미제문화'와 '비로도'가 판치는 거리」,『역사비평』, 112쪽 참조.

전후 지방 도시 대구에서도 미국 영화는 일상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소설 『마당 깊은 집』에서는 여고 삼학년 '동희 누나'가 사복 차림의 남학생과 주위를 힐끔거리며 송죽극장에서 상영하는『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는 '묘한 이름'의 영화를 본다.[10] 당시 지역 신문에서도 연일 헐리우드 영화를 선전하고 매진 사례를 광고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고 있었다. 자연히 미국 영화는 로컬에서 미국을 상상하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송죽극장은 전쟁 중에 형성된 양키시장과 향촌동 사이에 위치한 대구를 대표하는 극장으로, 양품점, 귀금속점, 시계점, 양복점, 라디오점 등과 함께 전후의 빈곤과 대비되는 공간이었다. 양키시장과 자유극장, 송죽극장, 중앙통, 동성로와 향촌동을 잇는 소설 내 동선은 풍요와 쾌락의 도시 문화를 상징한다. 함석헌 선생의 표현처럼 이곳은 "나라의 뿌리인 농촌은 나날이 말라 들어가는데, 도시에서는 한 집 건너 보석상, 두 집 건너 요리집, 과자집 그리고 다방, 댄스홀, 연극장, 미장원. 아무 것도 없던 사람도 벼슬만 한번 하고 장교만 되면 큰 집을 턱턱 짓고 길거리에 넘치는 것은 오늘만을 알고 나만을 생각하는 먹자 노자의 기분뿐"[11]인 공간이다. 그러나 풍요로운 도심 지역과 달리 장관동 일대는 궁핍한 생활의 현장으로 등장한다. 당시 장관동은 가난한 생활과 신분 차별, 미군 PX 문화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뒤얽힌 전후 난민 공간이었다.

배고픈 일상과 풍요로운 도시, 장관동과 송죽극장 일대의 대비는 로컬 내부에서 '탈-로컬'을 현실화시킨다. 주변부 주민들은 도심을 통해 '탈-로컬'을 상상한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소년 '길남'은 주변부 사람들과 달리 도심의 불합리와 부도덕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미국을 그것과 등치시킨다. 이는 어른이 된 작가의 인식과

10)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96, 33쪽.
11)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1958. 8, 34쪽.

관련된 것이며 전후 경제 개발 시대를 관통한 하나의 이해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탈-로컬'에 대한 '길남'의 지정학적인 이해라 할 수 있다.

길남에게 도심은 '미국 서부 영화'를 보기 위해 매표구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풍경과 '금과 은으로 만든 가락지, 팔찌, 목걸이 따위가 유리창 너머 진열되어' 있는 세계이면서 동시에 '삼대 민의원 선거와 정치 이야기로 입씨름' 하는 다방에서 물건을 파는 상의군인 '준호 아버지'의 비애를 확인하는 곳이다. 그리고 '양키들이 말을 타고 달리며 인디언을 마구 총질하는 장면을 어른들이 돈을 내고 박수를 치며 보는' 이상한 세계이기도 하다.[12] 사실 미국은 길남에게 북한 치하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을 공습한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 상황에서 도심과 미국은 불합리한 것으로 등치된다. 다시 말해 '길남'에게 미국 혹은 미군은 로컬의 불합리한 현실을 표상한다.

화려한 물질 공간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미국의 불합리한 모습은 길남에게 부도덕한 문화적 행태로 구체화 된다. 1955년을 기준으로 서울 인구가 환도 당시의 3배인 1백 30만을 돌파하는 초고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던 당시[13] 과잉화된 도시의 부도덕한 모습은 대구 도심 속에 축소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도심의 형성이 '가로등 하나 없는 거리에 번쩍이는 네온사인'처럼 토대를 결한 것이자 '댄스홀에 다니는 것으로 현대인이 되고 첨단을 걷는다고 자처하는 사람'처럼 부박한 것임을 설명한다.[14] 소설 『마당 깊은 집』에서 주인집 며느리가 댄스홀을 출입하는 상황과 댄스홀에 대한 추악한 소문은 댄스홀에 대한 전국적 폐쇄령과 맞물려 부

12)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96, 116쪽 참조.

13) 『경향신문』, 1955.7.19.

14) 김하태, 「한국에 있어서의 아메리카니즘」, 『사상계』, 1959.7, 66~67쪽 참조.

도덕한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방증하는 장면이다. 종교적 배경을 누락한 크리스마스, 문화적 저항의 의미를 상실한 재즈, 그리고 파마와 하이힐과 패션쇼에서 이혼과 가정파탄의 노이로제까지, 미국을 원천으로 하는 세계 문화에 대한 유행은 내실이 없는 무분별한 모방 욕구로 성토되기도 한다.[15] 결국 '길남'에게 탈-로컬은 부도덕한 미국 문화에 대한 모방으로 인지된다.

미국 문화에 대한 종속과 모방의 또 다른 방향은 소위 GI 혹은 PX 문화로 불리는 미군 부대 주변의 삶 속에서 확인된다. 기지촌과 양공주는 1950년대의 빈곤의 한 가운데서 생성된 주변적 삶의 형태 중 가장 열악한 것이었다.

> 전쟁으로 나는 고아가 됐다/배가 고팠다.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철든 계집애가 살을 가릴 옷이 없었다/그래서 나는 안나라는 갈보가 됐다. 한 끼 밥을 먹기 위해 피를 팔 듯, 나는 내 몸뚱아리를 파먹어 스물여덟을 살아왔다.[16]

오영수의 소설 「안나의 일기」에서 양공주인 주인공 안나가 쓴 유서의 한 대목이다. 가난과 생존의 문제는 전후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던져진 난제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미망인이 생겨났지만 그들이 의지해 생계를 꾸릴 방법이 없는' 현실은 부녀자들을 양공주나 매매춘 행위자로 전락시키는 기제(基劑)로 작용했다. 전국적으로 사창이 확대되고 종사자가 약 4만이라는 추계[17]는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한다.

---

15) 권보드래, 「1950년대 '시민'의 개념과 담론」, 『식민지 - 제국의 해체와 '전후' 동아시아 문화 질서의 재편』, 동국대 문화학술원, 2008.2. 150쪽 참조.

16) 오영수, 「안나의 일기」, 330쪽.

17) 이효재 · 변형윤 외,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95, 283~284쪽 참조.

생존과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기지촌으로 들어온 이들의 모습은 오상원의 소설『黃線地帶』에서 'OFF LIMITS YELLOW AREA'란 표현으로 압축된다. "OFF LIMITS YELLOW AREA... 여기는 전쟁과 함께 미군 주둔지 변두리에 더덕더덕 서식된 특수지대다. 흡사 곰팡이와 같다."에서 '특수지대'로 명명된 기지촌은 미군부대로부터 생존의 필수품을 얻어 연명한다. 그들에게 미군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전관용의 소설『진개권(塵芥圈)』또한 전후 미군이 주둔한 금화와 철원 근처를 배경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들은 쓰레기를 끓여서 만든 꿀꿀이죽을 먹고 쓰레기차를 '손님'이라 부르며 '차가 머물기 바쁘게 다람쥐처럼 매달'려 돈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 그들에게 미군은 연명의 전제이자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통로였던 셈이다.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돈과 생존, 경제적 기회와 미래적 삶이 연결된 전후의 주변적 삶의 실체가 그대로 제시된 곳이 바로 기지촌이었던 것이다.

전쟁으로 비워진 가장의 자리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시대의 '양공주'들은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정도의 물질적 욕망과 함께 '미군들의 결혼과 이주'를 꿈꾸는 시대의 자화상으로 등장한다. 최태응의 작품「전후파」에서 한 때는 잘 나가던 양공주 '양안나'가 연합군 장교와의 결혼에 실패하고 부산 영도 바다에 투신자살하자, 신문에 등장한 '허영에 뜬 매춘부의 말로'란 기사 제목은 당시 양공주에 대한 사회 인습적 시선을 보여준다. 문제는 미국과 미군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채,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미국으로 표상되는 세계로의 편입에 더욱 몰입하는 세태와 문화적 결핍 상태가 1954년 로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소설『마당 깊은 집』에서 미8군 PX에 근무하는 경기댁 딸 '미선이 누나'의 꿈 또한 미군과의 결혼과 미국으로의 이민이다. 그것은 경기댁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미국으로의 이민은 궁핍한 로

컬로부터의 탈출 경로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우는 다르지만, 주인집 큰아들 '성준'의 미국 유학도 탈-로컬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연애 대장'인 성준에게 미국 유학이 부도덕한 과거를 정리하는 방식이며 또한 지배 엘리트로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미군부대에 기대어 사는 하층민은 물론 미국 유학을 출세의 필수코스로 여기는 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탈-로컬의 대상적 실체로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설에서 길남은 미국을 두 개의 층위로 바라본다. 미군부대를 에두른 겹겹의 철조망과 '접근 금지, 접근하면 발포함' 팻말로 상징되는 미군의 폭력이 그 하나이다. 이는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내재한 몸수색과 검역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은 지역 권력을 조직하는 실질적인 존재로서 로컬 주민들에게 세계에 대한 인식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남에게 미국은 폭력이나 권력으로 구성된 세계였다. 주변이라는 로컬의 현실 위에서 미국으로의 탈-로컬은 반공의 강박, 빈곤의 일상을 벗어나 권력적 중앙으로 동일시되는 표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변부의 삶은 미국이라는 추상과 세계라는 환상을 통해 주변적 삶의 실체를 거부하게 되고 미국이라는 세계적 환상 속으로 포섭되거나 획일화 된다.

'미선이 누나'는 이러한 인물을 대표한다. "미국인은 그렇지 않는데 한국인은 마음이 검어", "난 한국이 싫어, 무슨 수를 쓰든 어서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미선이 누나'는 '마당 깊은 집'의 아래채에 살고 있는 주변부 삶을 부정한다. 그리고 미군과의 연결고리를 찾아 주인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다. 미군 피엑스에서 빌린 검정 공단 드레스를 입은 '미선이 누나'는 미국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배우처럼 파티의 중심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녀의 현실은 단지 위채 파티에 참석한 아래채 사람일 뿐이다. 아래채와 위채로 분리된 로컬적 구획을 그녀는 결코 벗어날 수 없

다. 아래채 쪽마루에서 추위에 떨며 파티를 바라보는 경기댁처럼 세계의 중심 미국은 주변부에서 바라보는 환상으로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변부 사람들의 주체적 탈-로컬은 불가능한 것이며 단지 미국 영화를 보거나 파티에 동원된 과정에서 느끼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곧 1954년 대구 소년의 미국(세계)에 대한 로컬적 시선이며 탈-로컬에 대한 지정학적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3. 내부 디아스포라와 세계/국가/로컬

전후 대구는 '미국인 영어학교'의 학생 모집 광고와[18] 피난민 여자의 행려사(行旅死) 기사[19]가 동시에 일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식민과 재식민의 연속적 경험 속에서 미국 등 세계체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영어를 통한 세계 보편과의 동일시 욕구로 구체화되는 한편, 전후에 지역으로 몰려든 난민들의 절대적인 빈곤 상황을 위의 기사는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 이는 영어와 절대 빈곤의 상황이 동일한 시공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후 대구의 복잡한 로컬적 상황을 압축하고 있다.

분단과 전쟁, 휴전 등 일련의 민족사적 사건들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 UN으로 표상되는 초국가적 세계체제 속에서 진행된 상황은 세계에 대한 당연한 관심으로 연결된다. 그것은 한국적

---

18) 『대구매일신문』, 1954.1.1.

19) 『대구매일신문』, 1954.1.3.

20) '미국인 영어 학교'는 대구 향교를 학교 공간으로 사용했다. 전통 교육의 장에서 영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당시 영어 교육의 위상을 설명한다. 한편, 행려 사건은 대구의 도심 지역에서 일어난 것으로, 당시 피난민들은 대구 약전골목과 진골목, 종로 등 도심 지역에서도 거주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대구 변두리 야산에 사과박스 등으로 만든 판자집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다.

상황에 내재된 세계적 인식이며 세계체제의 한국적 구조화로 볼 수 있다. 세계체제에 대한 관심은 사상이나 문화, 제도를 망라한 '세계성'에 대한 관심으로, 전후 국민국가의 내부를 제도나 이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미국 등 세계(체제)의 중심에서 전범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한다. 이는 주로 세계 중심에 대한 서술이나 제도 문화 등을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로컬은 이러한 세계체제에 대한 모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지정학적 공간으로, 그 속에 들어 온 세계, 특히 미국에 대한 일상적 관심과 구체적인 관계 맺기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54년 대구는 난민들의 공간이었다. 한국전쟁 과정에서 연명을 위해 대구로 이주한 이들은 소설『마당 깊은 집』의 아래채 사람들처럼 경기도나 강원도, 평양 등지는 물론 대구 인근 등지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대구의 어느 '분갑 같은 방'에서 각기 다른 사연들을 품은 채 지독한 가난을 경험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네 가족 중 그나마 형편이 나은 '경기댁'은 아들(홍규)과 딸(미선)이 각기 치과 기공사와 미군 PX에 근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김천댁'은 아래채 바깥에서 풀빵을 팔아 연명하며, 장교 출신 상이군인이 준호 아버지는 날품팔이로 살아간다. 주인공 길남의 신문팔이(배달)와 어머니의 삯바느질 일도 가난의 표상으로 기억된다. 한국전쟁은 세계의 주변인 대구에서 극심한 가난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특히 이 가난은 전쟁 상황에서 국가 내부의 이주와 맞물려 빈곤의 임계점을 형성한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대구는 전후 국가적 상황을 내면화 하거나 축소한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반공은 로컬리티적 문제에 앞서 전국가적 함의를 띤 것이지만, 반공이 어떻게 전후 로컬의 삶을 왜곡했는지는 로컬리티 형성의 주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전쟁에 의한 불행한 가족사나 개인사는 국가 내부에서 집

단 이주의 형태로 삶을 재구성한다. 이주민들은 최소한의 정주 조건도 상실한 채, 지역의 빈곤한 일상 속으로 재배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당 깊은 집'의 아래채 사람들은 국가 내부의 이주, 즉 '내부 디아스포라'의 상황 속에서 전후의 로컬로 이주한 주변인들이라 할 수 있다.

'내부 디아스포라'란 명명은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확대하거나 전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이산자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경우 디아스포라는 이주의 문제를 민족 문제에 국한시켜 이주의 실체 내지 계급적 문제 등을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 식민지 이주의 역사에서도 만주 이주와 국내 유랑은 만주 이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유랑농민들의 계급적인 실존과 같은 현실이 놓여 있었다.[21] 전후의 '내부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계급적 상황과 함께 전쟁이라는 정치적 정황이 동시에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내부 디아스포라'는 이주의 또 다른 방향, 즉 계급적 한계에 의한 국가 내부로의 탈-로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길남에게 전후 대구로의 이주는 가난한 가족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 '진영'에서 '장터거리 주막집 불목하니'를 하다가 겨우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된 길남이의 이주는 장관동으로 이주한 다른 이들과 같이 계급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서 로컬을 바라보는 길남의 시선은 정규 교육 과정에도 편입되지 못한 하층의 것이다. 그 내용은 주로 아래채 사람들과 로컬 이주민들이 내부 디아스포라 이후 어떤 주변적 삶을 사는지, 그리고 주변적 삶을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지, 그 욕망의 실체와 관련된다.

소년 길남에게 아래채 사람들은 전후 가난한 생활의 다면적 상황을 담지한 존재들로 인지된다. 그들은 내부 디아스포라 과정을

---

21) 강민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7, 108쪽 참조.

거쳐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와 존재 방식으로 혼종된 대구의 하층을 구성하는 인물들이다. '평양댁'의 큰 아들 '정태씨'처럼 남쪽의 자본주의 질서와 미국 문화에 물든 '전후파 족속'에 대한 경멸로 체제 부정을 노골적으로 내뱉는 사람과 연좌제의 불안 속에 살다가 결국 월북하는 '김천댁', 전쟁 중 오른손을 잃어 상의군인 된 '준호 아버지', 남편 없이 삯바느질로 가장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길남이 어머니' 등 다양한 인생들이 가난과의 쟁투를 벌인 곳이 전후 장관동이었다. 길남이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 전후 대구의 주변성을 서술한다. 정태씨의 경우처럼, 폐병의 핸디캡 속에서 룸펜적 생활과 정치 정황에 대한 불만으로 주변적 삶의 타락상을 토로하거나 장교 출신으로 상의군인이 된 준호 아버지의 사회 부적응과 무능력, 불안과 무저항적인 존재로 연명하는 김천댁의 생활, 13살 소년에게 가장의 역할을 강요하는 길남이의 어머니는 모두 내부 디아스포라 삶의 실체들이다. "니는 인자 애비 읎는 이 집안의 장자다. 가난하다는 기 무신 죈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매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제"라는 길남이 어머니의 토로는 그대로 내부 디아스포라의 인식을 반영한다. 그리고 "모두들 잘 살겠다는 꿈 아니구 이 마당에서 무슨 꿈이 더 중요하니"라는 평양댁의 말처럼 가난 극복이 그들의 과제임을 상기시킨다.

전후 로컬 내부에 가난 극복을 위한 성장과 발전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설에서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는 바로 성장 이데올로기이다. 전후 생존과 성장의 문제를 다룬 많은 소설이 자유주의적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자유주의적 성장 논리는 전후의 국가적 가치로 전유된다. 전후 근대화 과정에서 가난 극복과 풍요로운 생활의 성장 논리는 모든 목표를 앞서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이며 권력을 가진 가치였다.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 성장 모델은 가난 극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담론 체계로서 다양한 국가 내부의 욕망을 단일화하고 국민들의 강한 동의를 토대로 그들을 규율하고 감시하는 이데올로기가 된다. 그리고 개인의 희생과 공적 체계까지 수렴하는 국민 동의의 수준은 국가 독재를 용인하고 강제와 폭력을 필요악으로 여기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자유주의는 달리 말해 '가난의 정치학'이다. 소설『마당 깊은 집』이 창작된 1980년대 중반까지도 기성의 무의식을 지배한 것은 전후 가난의 기억이었다. '가난의 정치학'은 전후와 현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유주의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로컬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가난 극복이라는 로컬적 과제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재구성되면서 세계적 경제 질서를 상상하는 방식, 이것이 전후의 로컬과 세계가 관계 맺은 방식이었다.

소설에서 가난 극복은 탈-로컬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정치 상황을 거부하며 결국 김천댁을 월북시키는 '정태씨'는 미국적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부정으로 로컬의 주변적 삶을 벗어난다. 이와 반대로 '경기댁'은 이주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와는 달리, 주인집으로 대표되는 중앙적 삶을 지향하며, 그 방편으로 미군과 딸 '미선'의 결혼을 인정하고 미국으로의 이주를 갈망한다. 그러므로 탈-로컬 방식은 로컬로부터 세계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존재의 전환이거나 반대로 세계에 대한 부정의 방식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탈-로컬은 국가에 의해 조작되거나 왜곡된다. '정태씨'의 경우처럼 국가 혹은 자본 세계에 대한 부정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결박당하고, 미선의 미국 이주에 대한 갈망 또한 국가의 세계에 대한 환상이나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처럼 로컬적 삶은 근대 도시의 '결여' 상태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앙/주변이 차이에서 결여로 바뀌는 상태를 자각하는 지점에서 로컬은 만들어진다. 로컬의 주변적 삶이 중앙과의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정치적 결여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할 때, 로컬은 탈-로컬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심/주변의 일방적이며 폭력적인 배치는 탈-로컬의 목적을 더욱 강화한다. 이 때 국가는 탈-로컬의 방향과 흐름을 조작하거나 강제한다. 사실 중심은 밀도와 집중이라는 사전적 속성을 통해서 표상되는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개념이다.[22] 그러므로 중심이 권력화와 동일시되는 과정에는 문화 조작이나 이데올로기 장치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에 의해 작동한다. 탈-로컬을 규율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위치가 재확인되는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중심에 대한 문화 조작이나 이데올로기적 강제를 표면화 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가난 극복과 풍요의 표상인 미국으로의 편입이라는 세계적 구상과 맞물려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자장을 구성한다. 소설『마당 깊은 집』에서도 반공에 강박된 로컬의 욕망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물론 반공 이데올로기란 냉전 체제의 전 세계적인 기제이다. 이러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로컬의 내적 상황 혹은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로컬의 욕망 구조를 살피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반공에 강박된 로컬의 삶은 전 세계적 반공 기제가 삶의 실제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억압 기제를 만드는지를 확인시켜준다.

소설에서 아래채는 물론 주인집 사람들과 거리의 일상은 늘 반공의 강박 속에서 존재한다. 반공은 일상을 지배하는 국가의 논리이자 감시 체계이며 자기 검열의 시작점인 것이다. 소설에서 김천댁이 월북자 남편으로 인해 늘 반공의 감시 체제 속에서 불안한 일상을 사는 상황도 그렇지만 반공에 대한 일상적 이해와 검열은 로컬적 삶의 구획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개헌안 통과 찬성 반공 궐기대회'처럼 반공은 소설에서 전후 정

22) 정주아,「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자료집, 인천문화재단, 2011, 4쪽.

치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전후 로컬의 내부를 강제하는 문제적 논리로 인식된다. 반공에 대한 일상적 이해는 소설 속 준호 아버지와 정태씨의 대화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된다. 그들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여는 반공 궐기대회'를 비판하고 '반공과 친공' 사이에서 통일의 어려움을 공유하는가 하면, "반공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 이젠 식상"한 일상도 숨기지 않는다. 나아가 '소련과 미국'이 치른 체면 전쟁의 결과로 분단된 민족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이박사가 반공을 구실루 대통령을 오래"하려는 의도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준호 아버지는 원래 인민군 문화선전대로 내려와 국군에 귀순을 한 사람으로 북한의 획일적 통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이며, 정태씨는 미군의 폭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 온 반골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공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반공이 일상의 언어이자 지루한 정치 레파토리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의 반공은 국가 체제 안에서 상황에 따라 로컬의 내부를 압도하는 국가 폭력으로 나타난다. 소설에서 김천댁의 월북과 정태씨의 검거에 의한 일련의 상황은 틈입을 용납하지 않는 반공 국가 이데올로기의 위상을 보여준다. 월북 도중 검거된 '정태씨'의 문제가 평양댁 가족 전체와 주인집의 권력까지도 위협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무소불위적 상황을 드러낸다. 특히 소설에서 정태씨가 미전향 장기수로 복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위상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결국 자본 세계의 부정이라는 탈-로컬 인식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거부되거나 강제되고 만다.

4. 가부장제와 로컬/국가/세계

전후 대구의 피난민들은 흔히 피난 시절을 아버지 없는 시절이

라고 말한다. 소설『마당 깊은 집』에서 확인하듯이 한국전쟁이란 세계 권력 재편 과정은 로컬 내부에 아버지 부재라는 결과를 낳았다. 세계 권력 재편이라는 아버지 표상을 위해 실제 아버지들이 죽는 역설이 일어난 것이다. 소설 속 길남이 또한 '좌익하는 아버지'를 둔 덕에 아버지 부재를 경험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길남이(자식들)는 당연히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 모여든 곳이 바로 전후의 대구였다.

한편, 아버지의 부재는 여성 혹은 어머니의 삶을 재구성한다. 가부장제 내부에서 '침묵하는 서발턴'(subaltern)'[23]으로 살아온 어머니들은 아버지 없는 전후의 로컬 상황에서 가장(家長)의 위치로 전이된다. 물론 이는 하위가 상위를 가로지르거나 아버지 중심의 획일적 시각을 해체하고 등장하는 여성 주체와는 다른 것이다. 전후 여성들은 주변부로 밀려난 삶의 위기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선택으로서 가장(家長)의 위치를 모방할 뿐이다. 소설『마당 깊은 집』의 여성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아버지 혹은 가장을 모방한다. 길남의 어머니는 가장 위계를 모방함으로써 자식들의 공부와 생계, 가족 내부의 질서를 세우는 엄한 존재이다. 그러나 결국 길남이에게 가장의 권위와 역할을 기대하는 여성으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평양댁과 경기댁 또한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넘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김천댁이나 미선이 누나도 월북한 남편을 따라가거나 미군에 의지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이 모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가장의 위치를 모방할 뿐이다. 로컬의 여성들은 결코 제국 혹은 상위의 가장이 될 수 없는 존재들로, 스피박이 말

23) 스피박은 "이 말없음에 우리가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배정치와 결합된 완고한 재현체계가 서발턴을 침묵시키고, 이에 우리가 공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박미선 역,『포스트 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55, 427~428쪽 참조.

하는 ‘서벌턴의 재현 불가능성’은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들의 위계와 가부장 체제를 국가나 세계 체제와 동일시하며 그것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소설 속 여성들에게 탈-로컬은 가부장 체제의 복원을 의미한다.

아버지 없는 전후 로컬에서 국가는 아버지를 대신한다. 국가는 가난 극복의 대의를 제시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한편, 권위와 폭력으로 로컬의 내부를 질서화 한다. 이러한 가부장 체제를 토대로 국가는 가난한 가족 혹은 여성을 구하는 가장의 위치에서 로컬의 주변적 삶을 세계 질서 속으로 편입시킨다. 그것은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전후의 모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로컬적 삶을 세계적 자본 구조로 편입시키려는 국가 기획은 가부장 체제의 로컬적 실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로컬은 국가에 의해 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 체제로 포섭된다.

소설『마당 깊은 집』은 자본주의 가부장 체제가 어떤 것인지를 일상 속에서 보여준다. 소설에서 아래채와 주인집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 토호의 권력 구조를 토대로 하는 자본화된 가부장제이다. 경북 의성군의 문벌이었던 주인집은 ‘왜정 때 동척’으로, 해방 후엔 사업으로 성공한 집안이다. 지역 가부장 체제의 중심에서 자본가로 성장한 로컬의 권력가라 할 수 있다. 자연히 ‘마당 깊은 집’은 가부장 체제와 자본을 중심으로 구조화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러한 ‘마당 깊은 집’ 내부로 끊임없이 가부장적 질서와 자본의 열기를 제공한다.

주인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로컬의 가부장제와 자본 권력을 유지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이다. 그들은 주로 2군 사령부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주인의 사촌 내외와 영남 비료 사장인 친척 등 지역의 자본가이거나 육근 대령과 대구 경찰서 대공 담당 경감, 미군 대위, 도청 국장 등 국가의 핵심 권력들이다. 이들은 국가 체제와 로컬 권력이 공모하는 자본주의 가부장 체제의 일상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들

은 미군을 제외하고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 체제가 지역 자본과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내적 구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주인집 큰 아들의 유학과 관련된 주인집의 파티는 로컬과 국가, 미국(세계)이 어떤 권력 구조를 구축하고 재생산 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편, 소년 길남은 '달콤한 음식'과 '미국 음악과 춤'을 즐기는 주인집 파티를 훔쳐본다. 그러나 길남의 어머니는 "그 돈놀음 잔치"와 길남이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가장으로서 길남을 각성시킨다. 그리고 가장으로 성장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돈벌이를 하는 것과 '공부하는 학생'이 되기를 바란다. 돈벌이와 공부가 생계적인 차원을 넘어 로컬의 주변부에서 가부장 체제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의 실체가 자본과 출세, 즉 권력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킨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성장한 어른 길남이가 가족과 함께 당당히 대구를 찾는 결말은 이후 소년 길남의 삶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이 장면은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모두 잘 살게 되었다"란 회고와 함께 가부장 체제를 통해 자본과 권력 내부로 편입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내면을 보여준다. 이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의 시선이며 동시에 이들 세대가 만들어낸 '근대화'가 가부장 체제와 깊은 관련 속에 있다는 것을 증언한다.

가부장 체제는 자연히 여성을 주변부에 위치시킨다. 소설에서 길남이 어머니나 평양댁, 경기댁과 김천댁은 물론 심지어 주인집 아주머니마저도 소설 속의 여성은 모두 주변부에 존재한다. 친정 쪽으로 인척인 바깥채 김천댁에게 방을 빼라고 재촉하는 주인집 아주머니는 그저 로컬의 주변에 있는 힘없는 인물에 불과하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주인집 '어른'의 존재 속에서만 중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 폭력이나 재현 체계에서 '마당 깊은 집'의 여성들은 스스로의 발화를 차단한다. 소설에서 '정태씨'의 월북 사

건 때문에 새벽에 들이닥친 방첩대를 향한 경기댁의 말은 그것을 대변한다. “무엇보다 입 조심이 제일이다. 한 마디 말도 천금으로 알아 씹고 씹어 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성의 주변부적 삶을 부정하거나 국가 폭력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국가에 대한 복종과 가부장 체제로의 편입을 갈망한다. 길남의 어머니가 장남인 길남이를 가족의 중심으로 세우려는 것도 국가에 대한 복종과 가부장 체제에 대한 욕망의 하나이다.

세계와 로컬이 국가라는 영역으로 묶일 때, 로컬의 위치에서 여성의 층위는 늘 가부장 체제 내부로 수렴된다. 그리고 세계적 자본주의 가부장 체제 속에서 하위주체인 여성의 탈-로컬은 가부장 체제를 의미한다. 결국 로컬들을 지배해온 민족주의 엘리트 중심의 가부장 구조는 정치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차이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주체들의 탈-로컬적 욕망을 제어하거나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5. 1954년과 2011년

1954년, 대구는 전후 지구적 자본주의 가부장 체제를 사는 가난한 하위주체들의 공간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성장과 성공, 미국 혹은 중앙 메트로폴리탄 도시 문화에 대한 선망, 가부장 체제의 강고한 구조, 국가 이데올로기의 압력 등 로컬의 주변부 삶을 강제하던 구조는 전후 대구를 구성하는 세계의 실체였다. 그것은 또한 로컬적 삶의 실체이기도 했다. 로컬의 주민들은 세계 자본에 대한 인식에 앞서 전후의 황폐한 로컬적 현실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했다. 가난과 가부장적 구조 내에서 진행되는 가족 연대기, 권력과 욕망의 일상이 로컬의 전부라고 여기는 하위적 삶의 실체가 전면화 된 것이 곧 1954년 대구라는 전후의 로컬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세계화의 로컬적 상황을 압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1954년 대구가 경험했던 세계화의 논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 동안 가부장 체제와 폐쇄적 지역 순혈주의가 대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되었고, 전후 60년의 세월 동안 자본적 경쟁체제가 부추기는 성공과 승리 독식에 대한 욕망은 지역의 자연, 농촌, 땅, 그리고 사람을 황폐화시켰다. 글로컬리즘이 운위되는 시대, 지역은 여전히 세계라는 자본 시장에 의해 굴절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지역은 불가능한가? 이에 대한 질문과 대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물레책방, 대구의 재발견, 대구북구시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대구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역과 자본을 넘어서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24] 다른 윤리, 다른 감성, 다른 인식소를 나누고 나눔과 우정의 언어 혹은 견고한 구조를 뚫는 연대의 숨구멍으로 소통의 방식을 찾고 있다. '경쟁과 적자생존'이 아니라 연대와 상호부조를 진화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는 사상(P. 크로포트킨)적 흐름이 지역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연대가 지역 사회의 구성 원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경향신문』, 1955.7.19.
『대구매일신문』, 1954.1.3.

24) 이 단체들은 지역 시민들의 모임으로, 지역 간 교류 및 공동 컨퍼런스 등을 통해 지역 현안과 문제점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 특히 생태 공동체나 마을 공동체 등에 대한 실천과 협력을 모색하면서 중앙권력과 집중된 자본에 저항하고 있다.

권정생, 「영원히 부끄러울 전쟁」, 『역사비평』, 1995 여름, 18~20쪽
김하태, 「한국에 있어서의 아메리카니즘」, 『사상계』, 1959. 7, 66~67쪽.
김원일, 『마당 깊은 집』, 문학과 지성사, 1996,
김호기, 「신자유주의의 황혼」, 『경향신문』, 2011.10.16.
오영수, 「안나의 일기」, 330쪽.
이만갑, 「윤리의 세대적 차질」, 『사상계』 1959.4, 35쪽.

2. 논문

권보드래, 「1950년대 '시민'의 개념과 담론」, 『식민지 - 제국의 해체와 '전후' 동아시아 문화 질서의 재편』, 동국대 문화학술원, 2008.2. 150쪽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로컬리티, 글로컬리즘을 재사유하다』, 『로컬리티 인문학』 편집위원회 좌담회, 2010.2.25.
정주아, 「움직이는 중심들, 가능성과 선택으로서의 로컬리티」, 『로컬리티와 지정학적 상상력』 자료집, 인천문화재단, 2011, 4쪽.

3. 단행본

강민길,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7, 108쪽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 박미선 역, 『포스트 식민 이성 비판』, 갈무리, 2055, 427~428쪽.
김용규, 「로컬리티의 문화정치학과 비판적 로컬리티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혜안, 2009, 93쪽
이효재 · 변형윤 외, 「분단시대의 여성운동」,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95, 283~284쪽
데이비드 하비, 최병두 역, 『희망의 공간』, 한울, 2001,

A Daegu Boy's Geopolitical Imagination in 1954

Park, Seung-Hee

In 1954, Daegu is a region where the world condition and anti-Communism ideology followed by the Korean War and Cold War coexisted with the post-war life of poverty. The novel 『A House with the Deep Yard』 is a sort of growth novel against the background of post-war Daegu region. This represents the logic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embodied after the Korean War. In addition, this novel shows how the liberalists' growth logic after the Korean War was reflected in the local area in a boy's perspective. Represented all are the recognition of the world mirrored in the post-war culture of the U.S., local life restructured with poverty and anti-Communism, and the oppression of the government against the local area. Thus, 『A House with the Deep Yard』 well describes how the locals were aware of the world after the War when the liberalistic economy started to be recognized and how the local life was restructured by the government. In particular, in that the novel was created in the mid-1980's, this novel is a significant material through which you may look into the awareness of globalization among the older generation with the positive view on the post-war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Key words: Korean War, Glocalization, 『A House with the Deep Yard』, Locality, Daegu, liberalism

박승희
소속: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태왕월드하이츠 103동 807호
전화번호: 053-810-2127
전자우편: bround33@ynu.ac.kr

이 논문은 2011년 11월 7일 투고하여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30일 간행함